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1월11일(화)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6시38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경원 위원님 등 7인으로부터 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2조제3호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배숙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78년의 검찰 역사상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항소 포기라는 것은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이게 마감 7분 전에 뒤집혔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은 자기는 대검과 의견 합의를 본 바가 없다 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그 외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또 대통령이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사실 오늘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건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건대 외압이 작용했는데 대통령실 거기에 보면……

오늘 또 법무부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개입한 바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조상호 정책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이재명 도지사 당시의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분은 엄연히 공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와 가지고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히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7800억이나 되는 추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논의를 하고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밝힐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얘기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논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사법부의 판결에 의거해서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습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항소를 해라, 하지 마라’ 했으면 개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이 말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12월 3일이 내일모레입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 왜 윤석열 즉시항고 그리고 김건희의 그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저는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항도 명정한 X입니다. 그리고 비겁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합의하고 나서는 이제 발을 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 이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것하고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혁진 위원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지원 위원 내란 세력이니까 안 보이지요.

○조배숙 위원 무슨 ‘내란 세력’을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박지원 위원 내란 세력 아니에요?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이죠.

○신동욱 위원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무슨 옹호를 합니까?

○박지원 위원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조배숙 위원 무슨 옹호를 합니까?

○최혁진 위원 박지원 위원님 발언시간입니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예의가 없어요.

○신동욱 위원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이성윤 위원 왜 발언시간에 끼어들고 그러세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배숙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박지원 위원 옛날에 민주당에 있을 때는 얼마나 민주적이더니 저리 전향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신동욱 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조배숙 위원 민주당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서……

○신동욱 위원 박지원 위원님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으면서 뭘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신동욱 위원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본건하고? ‘옛날에 민주당에 있었네’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신동욱 위원, 나서지 마.

○위원장 추미애 광규택 위원님 3분 발언입니다.

○광규택 위원 제대로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지금 저 자리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권한대행, 법무부차관, 대검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다 나오라고 해 가지고 정상적인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제 역할도 못 하고 법사위원장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지금 78년 된 검찰 역사 이래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지금 다 확인된 상황인데 이렇게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것 듣자고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7800억 이제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 수중에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정진상 똑같은 구조로 공판 진행 중인 뇌물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되겠지요. 그리고 재판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특경법 배임 적용할 수 없겠지요. 그런 것 다 고려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총대 매고 그렇게 진행된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다’ 이렇게 주장하시려면 법사위 정상적으로 열어야지요. 한쪽에서는 조작된 기소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은 나와 가지고 잘된 수사과 재판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말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열어야 할 법사위는 안건 정하지도 않고 열어 가지고 저 자리를 텅 비워 놓고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작 국회의 역할이 필요할 때 직무유기한 게 바로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입니다. 반성하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 ‘제정신이나’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하시는데요 나가

도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나경원 위원 등이 국회법 제 52조 3호에 따라서 개회 요구를 해서 위원장은 어제 간사를 통해서 안전 또 의사일정 방식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협의를 거부한 쪽은 바로 국민의힘 쪽입니다.

○나경원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마이크 들고 있다고 또 거짓말하십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 전체 워크숍이 있었고 또 그 워크숍이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회의를 열어 드리겠다라고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한 것을 증인을 7명이나 채택해 달라, 더군다나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 증인에 포함시켜서 증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증인 소환절차 이런 것 등등이 국회의 증감법에 따른 증인 소환 시간을 두지 않고 증인을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억지를 부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회의의 안전과 회의의 진행 방식 등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안전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나경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여기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의 요구에 안전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최혁진 위원 본인 발언 때 발언하세요.

○나경원 위원 아니, 본인 마이크 잡고 있다고 자꾸 거짓말하시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할 때마다 ‘제정신이나’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면 위원장 발언을 방해하고 개입하고 끼어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진행 발언 기회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눈곱만큼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의를 바라시는 겁니까?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발언 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다음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왜 항소를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다른 것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수익을 추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했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정 청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피해 환수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정법 배임 사건, 범죄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계약 당시에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의 이익이 남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익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데 이재명 전 시장을 잡아 보겠다는 욕심으로 액수를 자기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특정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성립한 이유가 서판교 터널

개설 이것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이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판교 개설계획이 이미 성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고, 공표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에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이 불가피하게 무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항소심 가도 되지도 않을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서 이기겠다고 검찰이 주장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조작 기소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 항소를 하겠다고 우겼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 재산 몰수법 봐 보십시오. 사기 범죄에 대해서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가 추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사범이나 조직적인 전세보증 사기사범 같은, 서민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놔둔 규정입니다. 지금 성남도시공사는 새 시장에 의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공사를 뭘 보호해 주겠다고 법에 어긋나게 이런 추정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내용도 없고 절차도 잘못된 이런 항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소도 문제고 항소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위원님들의 주장은 될 수가 없는 일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목구어라고 해야지요.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 위원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 회의, 저는 이 회의 개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46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의 조항에……

○곽규택 위원 모욕하는 발언 한 적 없어요, 나경원 위원님은. 무슨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박준태 위원 어떤 부분이 모욕적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표현이 그렇게 모욕적이었습니까?

○곽규택 위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지금 회의 운영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에요.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 따라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마이크 잡고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아주 잘된 판결이라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 신중

한 검토 필요하다고 검찰에 메시지, 완전히 이런 개입까지 해 가면서 이 사건이 항소가 취소됐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당시 시장 시절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재명 시장 당시 뭐라 그랬냐? 대장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소위 남는 게 없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7800억 가까운 이익이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이게 사후적으로 나타난 거지요. 분명히 엄청난 특혜 이익이 발생했고 그것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벌써 다 조사해 놓은 사안인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제는 범죄자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시에 시장으로서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업 허가권 그리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 각종 이익의 특혜를,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게 ‘성남의 딸’이라는 SPC를 세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사후에 모든 상황을 알고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지난번 2021년 국감 때 뭐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벌써 결론을 내렸어요, 본인은. 50억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 받아서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거기서 책임 넘기고 장물 나눈 자, 바로 실무자들, 유동규 등을 비롯한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그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자신 있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 그 당시 대통령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고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수뇌부의 핵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기자회견으로 해보세요, 기자회견으로. 기자회견 해보세요.

○**송석준 위원**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지요.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 가까운 특혜 이익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공모한 범죄가 검찰 수사, 치밀한 범죄 과학 기획 수사에 의해서 기획 범죄의 진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 이미 실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돈 7800억 원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것은 폭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안질의를 하자고 회의를 소집 요청했더니 이게 뭐니까?

지금 여기에 와야 될 검사, 검찰 관계자들은 굳이 미리 알릴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 정부 관계자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개인적으로 접촉해 보면 다 올 수 있는 분들이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그 사람들 안 부르고 우리끼리 이렇게 맹탕 현안질의 하자는 겁니까?

○**김용민 위원** 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네.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랑 개인적 접촉하

고 있었네, 국힘이!

○송석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님은 정말 이것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제대로 된 현안질의 회의 소집해 주시고 관련된 증인들 즉각 불러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용민 위원 국힘이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어, 검사들이랑.

○조배숙 위원 무슨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기는?

○김용민 위원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접촉하면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접촉하면 다 온다고요.

○나경원 위원 접촉했으면, 우리 검찰청에 찾아갔으면 문 열어 줘니까?

○곽규택 위원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지 말고.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함부로 입 막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법치주의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지극히 부당하고 전례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분명히 1심 판결이 검찰이 요구한 대로 제대로 단죄가 되지 않았고 거기서 뺀 범죄 수익을 갖다가 다시 그들에게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누구랑, 어떤 검사랑 그렇게 밤에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거예요, 혹시?

○최혁진 위원 송 위원님, 5분째 얘기하고 계세요. 그만하세요.

○박은정 위원 검사 누구 만났어요? 국민의힘, 정진우 만났어요?

○나경원 위원 정성호 장관하고 치맥 파티 한 거 진실 밝혀요.

○서영교 위원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발언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현안질의 회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송석준 위원님,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안전을 다듬어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질서유지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됐어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 하던 검사들 뭘니까, 지금? 윤석열 구속취소되었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포기해야 됐다고 말했던 검사들, 즉시항고 포기하자 아무 말도 못 했던 그 검사들 뭘니까,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에게 불러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김건희에게 수사했다고 해 놓고 무혐의 친 그 검사들 뭘니까, 지금? 그때 한마디도 못 하던 그 검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한마디도 말 못 하던 검사들 바로 윤석열의 검사들이었지요. 지금도 그 검사들이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를 저항하면서 또 다시 오늘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검사장 8명 그리고 정유미 검사 그리고 박경택 검사, 박영진 검사, 18개 지

방검찰청 검사장 이름 다 내놓으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 했을 때 뭐 했어요? 박성재가 3600개 구치소 방 찾아낼 때 뭐 했어요? 그대 놓고 지금 와서 어찌자는 겁니까?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동규, 검사가 몇 년 구형했습니까? 7년 구형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유동규 나쁘네, 아무래도 검사하고 짜고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8년 선고 했어요. 정민용, 검사가 5년 구형했어요. 그리고 판사가 징역 6년 선고 때렸어요. 그래서 항소해서 어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더 징역형 내려 달라고 항소하는 겁니까? 항소 왜 하겠다는 거예요? 징역형 내려 달라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송석준 위원 김만배 12년을 8년으로 줬네. 김만배를 왜 깎았어요, 형량을?

○서영교 위원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정리해 줄게요.

항소 기준에 따라서, 이거 숨기고 있던 대검의 항소 기준이에요, 대검 예규.

○송석준 위원 저거 잘 보이네,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12년을 8년으로 깎았네, 김만배.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해!

○서영교 위원 대검 예규 기준의 2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요?

○나경원 위원 저거는 전부 유죄 났을 때 하는 거야, 전부 유죄. 일부 무죄는 아니야.

○박준태 위원 일부 무죄에 항소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박지원 위원 그렇게 써 있구만.

○서영교 위원 대검 예규에 이거 꼭꼭 숨기고 있던 거 내가 가지고 왔어요.

○송석준 위원 가장 최측근 김만배 12년 구형을 왜 8년을 했어요? 검찰이 당일 날 항소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7000억 이런 얘기를, 검사가 기소했는데요. 판사가 ‘이거 비밀 아니거든? 그리고 이거 공소시효 지났어’ 이러고 무죄 때린 거예요. 비밀 아니라는데, 그러면 비밀인 내용을 갖고 오든지. 판사가 ‘비밀 아니야. 공소시효 지났어. 그래서 면소야’, 왜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김만배 건 보세요, 김만배.

○서영교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머니 창피해, 너무나 잘못됐어’ 이래야 되는 거고 사실상 중요한 것은 남욱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일권 부장검사가 아이 사진을 갖다 놓고, 남욱을 불러다 놓고 ‘너 아이들 보고 싶지? 네 배를 싹 다 갈라서 장기를 싹 꺼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환부를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 아이들 보고 싶지?’ 정일권 부장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일권 부장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따위로 조사한 거……

(장내 소란)

○곽규택 위원 무슨 사실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했지.

○나경원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지. 그거 사실이라고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했어요.

○서영교 위원 무슨 소리예요? 정일권 부장판사를 ‘오마이뉴스’가 직접 통화했는데. 아시겠어요?

○송석준 위원 마음에 안 드는 유동규는 형량을 올리고 측근 김만배는 형량을 다 깎은 이 재판이 잘된 거예요? 당연히 항소 대상이지.

○서영교 위원 정일권 검사가 남욱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배를 싹 가르고 장기를 들어내서……’.

○곽규택 위원 정일권 검사 부릅시다, 그러면. 오늘 불러서 물어보면 되겠네.

○나경원 위원 하여간 서영교 위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좀 그만들 해요.

○서영교 위원 이보세요, ‘아이들 사진은 어디서 나왔어?’라고 물으니 ‘포렌식 해서 나온 겁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김만배 건을 보니까 당연히 항소 대상이야, 유동규는 보니까 봐줘도 되겠구만. 그런데 김만배는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엄벌에 처해야지, 엄벌에.

○곽규택 위원 아무도 못 부르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오늘 다 불러요, 그러면 다 불러.

○나경원 위원 거짓말 좀 그만해요. 그러니까 불러서 물어봐요.

○박준태 위원 그래서 불러내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부르지도 않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

○조배숙 위원 물어봅시다!

○서영교 위원 이런 검사들 지금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맞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다 불러서 물어봐요.

○박준태 위원 물어봐요.

○서영교 위원 이 검사들을 옹호하고 싶은 거예요? 배를 가르겠다고 한 검사를 옹호하겠다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이 판사입니까?

○송석준 위원 7800억을 국민들께 돌려주세요. 여러분들, 7800억 훔쳐 가지 마세요! 범죄 뭇을 뺏어 가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그리고 무식하게…… 공부 좀 하세요. 판결문이 어떤지 한번 읽어나 보라고.

이상입니다.

○최혁진 위원 제가 발언할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박준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서영교 위원 판결문이 어떤지 읽어나 보라고, 좀!

○이성윤 위원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공부 좀.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기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연막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이 검사 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피고인들이 허위·조작·날조한 것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요.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항소 안 하면 피고인들을 겁박할 수단을 자기들이 내려놓게 돼요. 마침 그때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외압받은 척 쇼를 하고 사직서 내면서 도망가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왜 그러겠어요?

○나경원 위원 김용민 위원, 그쪽 3명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

○김용민 위원 4:3:1, 아까 처음에 4라고 그랬지요.

○나경원 위원 아니야, 그쪽 3명 한다 그랬잖아. 무슨 4야? 우리가 긴급현안질의를 했는데, 빨리 달라 그래.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최혁진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지껄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검사들한테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국민정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라’, 피고인한테 ‘배를 가르다. 너희 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한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잘하신다 그래요? 신중하게 하라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외압하고 허위로 조작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가 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연가를 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 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때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이 여야를 떠나서 검사들이 이렇게 불법을 한 게 나타나면 같이 문제 제기하고 국가 기강을 무너트린 검사들을 단죄에 처하고 해야 되는데 좋아서 희희낙락해요, 때가 왔다고. 정신 차리세요. 누구한테 감히 제정신이나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연루돼 있는 모든 검사들 반드시 직무 배제하고 대기 발령하고 사직서 처리 절대 해 주면 안 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 박탈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공직 기강이 제대로 서고 검찰이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법무부장관 부름시다, 그러면.

○나경원 위원 법무부장관 부르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준태 위원 불려요. 특검 해야 되겠다.

○송석준 위원 나쁜 검찰 따져 봅시다, 제대로 된 현안질의 한 번 하고.

○신동욱 위원 발언 기회 주세요, 저도.

○주진우 위원 왜 우리는 안 줘요?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 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요.

○김기표 위원 들어온 거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해졌다고 주장하네요. 뭐가 유리해졌나요? 본건 피고인들은 김만배 등 5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지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습니다. 법조인 출신 여기 많이 계시지요? 항소 포기해서 확정된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그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안 미칩니다.

○송석준 위원 영향 미치지요.

○김기표 위원 송석준 위원,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송석준 위원 절대적으로 미치지요, 절대적으로.

○김기표 위원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따로 사석에서 물어……

○송석준 위원 미칩니다.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김기표 위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봐도……

○송석준 위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요.

○김기표 위원 제 말씀 들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고 애꿎은 추정 얘기 합니다. 추정은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이 간략히 얘기했지만 국가가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 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 판결문의 정당성이나 이런 건 제가 굳이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공사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장입니다. 그분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정보전 처분이 돼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손해배상청구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결문에서는 임의적 추정·몰수인데도 굳이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민사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항소를 안 하면 몇천억이나 되는 돈을 국가에서 잃어 버리는 듯한…… 그렇게 마타도어, 참주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 민사소송 오래 걸리잖아요.

○송석준 위원 형사적으로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김기표 위원 제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거짓말시키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을.

○김기표 위원 그래서 판결문 좀 읽어 보고 주장합시다. 판결문 좀 읽어 보고 주장하시고, 다 읽어 봤어요? 안 읽어 봤지요? 좀 읽어 보세요.

○박준태 위원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401번.

○송석준 위원 읽어 봤지요. 읽어 본 걸로 나오는 거지요.

○김기표 위원 그리고 내란 수괴 구속취소에 대해서 침묵하고 즉시항고 안 할 때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 불러서 수사받을 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무혐의 날 때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이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검찰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집단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형했는데 무죄 났어요. 검찰이 항소 포기했네요?

장동혁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어도……

○곽규택 위원 그게 비교가 되는 사건입니까?

○나경원 위원 이 사건 선거법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신동욱 위원 비교할 것을 좀 합시다. 그게 비교가 됩니까?

○조배숙 위원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게 비교할 대상이 됩니까?

○김기표 위원 조용히 하십시오.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곽규택 위원 대장동 사건하고 비교가 되는 사건을 이야기해야지.

○김기표 위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왜 합니까? 기소해서 재판하는 건 왜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1분 왜 넣어요? 우리 의사진행발언 3분이잖아요, 3분.

○조배숙 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뭘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용민 위원 중요한 얘기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계속 발언을 방해했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리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발언을 방해받았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면 우리도 더 주세요.

○곽규택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위원한테 왜 1분을 더 줘요!

○김기표 위원 대장동 출신 변호인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곽규택 위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한테 왜 1분 더 주냐고요.

○**김기표 위원** 대장동하고 관련 없습니다.

○**곽규택 위원** 여기가 무슨 법정인 줄 아세요?

○**송석준 위원** 아니, 대장동 특혜 비리 벌이더니 여기서 또 추미애 특혜 비리 벌입니까? 이것은 추미애 특혜 비리예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위원** 껌데기 현안질의 열어 놓고, 위원장이 참 훌륭하셔.

○**김기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구형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입 다무십시오. 알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왜 그때 항의 안 했어요?

○**김기표 위원** 그리고 검사가 왜 사건을 기소합니까?

○**곽규택 위원** 다 불려요, 다 불려 그러면!

○**김기표 위원** 방해하지 마십시오.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검사는 처벌을 위해서 기소합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 중에 2명이 구형량보다 더 늘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가서 형 깎아 달라고 할 생각입니까? 그것을 못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 다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김기표 위원님은 지금 변호사로서의 발언이에요. 판결의 내용을 보세요.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 재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김기표 위원** 판결문 좀 읽어 보고 얘기하세요, 판결문 좀 읽어 보고!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1월 9일이지요, 그저께. 11월 9일 일요일 11시 50분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 미항소 관련해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11월 10일 월요일 10시 30분으로 소집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지역위원장 2025년도 워크숍이 1박 2일간, 당 공식 행사가 미리 잡혀 있었던 관계로 이를 알려 드리면서 11월 11일 화요일 16시 30분 개회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전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아 달라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1월 11일 화요일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 자체를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거짓말을 하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증감법 제5조의 요건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은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마이크를 끄시는 이유가 위원장님 혼자 거짓말하시려고 그러니까?

○박은정 위원 검사들하고 얘기가 다 끝났구만요. 검사들 증인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그랬지요, 얘기 다 끝나 가지고. 정진우 검사 만났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심지어 신청 증인의 명단에는 대장동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 고소장이 왜 관계가 없어요, 다 조종하고 있는데?

○박준태 위원 거기가 핵심이에요, 거기가 핵심이야. 김현지가 핵심이에요, 대장동 사건에서. 온갖 사건 다 개입하고.

○위원장 추미애 이는 검찰권 남용 사태를 가리기 위한 정쟁을 기도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들하고 얼마나 통화하고 계세요? 어느 검사들 만나고 있습니까?

○곽규택 위원 김현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을?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간사 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 시에는 11월 11일 화요일 14시 30분에 예정대로 회의할 것임을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인 내일 전체회의가 소집되고 또 법무부장관께서도 나오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나경원 위원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간사 협의와 관련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저 발언 안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회의 끝내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출석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안질의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장내 소란)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안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입틀막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신동욱 위원 주세요! 신동욱 위원님 발언 주세요! 발언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현안질의의 일정,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왜 혼자 발언하십니까? 왜 혼자 발언하십니까? 왜 혼자 발언하십니까?

○송석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요!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주셔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균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운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입시회의록